



### 2015 제6차 세계산불대회(WFC) 한국유치 확정

- 남아공 5차대회서 승인... "산불분야 최대행사, 한국 산불방지역량 알릴 기회" -

우리나라가 2015년 열리는 제6차 '세계산불컨퍼런스(IWFC)'를 유치했다. 한국은 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시티에서 열린 제5차 IWFC 폐막식에서 자기 대회 유치국으로 공식 확정했다.

'세계산불대회'로도 불리는 IWFC는 전 세계 산불전문가들이 4년마다 한자리에 모여 각종 회의와 학술토론을 벌이는 산불 관련 최대 국제행사다. 1988년 미국 옐로스톤 산불을 계기로 초대형 산불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산불감시센터(GFMC)가 이듬해 미국 보스턴에서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 행정, 기술, 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연회회가 시초다.

당초 제6차 대회는 칠레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칠레가 국내 사정으로 지난해 유치를 반납한 뒤 GFMC가 한국에 유치 의사를 타진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국은 대회유치 후보국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이날 대회 유치가 결정된 직후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하영효 산림청 차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6차 IWFC를 개최하려는 한국의 의사가 받아들여진 데 감사한다"며 "세계산림연구기관(IUFRO) 총회 및 G20 서울 정상회의의 등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역량을 바탕으로 다음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림청은 이 대회의 국내 유치가 산불 대응력 및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리의 산불방지시스템, 산림녹화기술, 산림병해충방제 및 사막화방지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차장은 "2015년 한국 대회는 '산불피해 저감을 위한 대륙간 협력 및 네트워크별 협력방안'을 주제로 80여개 산불 관련 분야의 전문가 1500여명이 참가하는 대형 국제행사가 될 것"이라며 "대형산불은 국경을 넘는 국제 이슈로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파라과이 수도 최대공원에 첫 한국 전통정원 들어서

- 아순시온에 '한-파라과이 우호림' 준공...16일 준공식엔 대통령도 참석 -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식 전통정원을 갖춘 숲이 남미 중심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만들어졌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파라과이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간 우호와 산림협력을 나타내는 '한국-파라과이 우호림' 조성을 완료하고 16일(현지시각) 아순시온 뉴과수 시민공원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 이규태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장, 박동원 주 파라과이 대사, 토랄레스 파라과이 산림청장, 녹색사업단 관계자와 파라과이 교민 등이 참석했다.

루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립 200주년의 기쁨을 한국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우호림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양국민의 영원한 우정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전통 정자와 소나무림, 정원 등을 갖춘 우호림은 뉴과수 공원, 파라과이 산림청, 대통령 관저 등 3곳에 각각 만들어졌다.

시행을 맡은 녹색사업단은 뉴과수 공원에는 한국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팔각정자와 석등, 장승을 설치하고 5000㎡의 면적에 우리나라의 홍취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소나무(Pinus elliotii) 수종으로 정원을 조성했다. 뉴과수 공원은 주말에 시민 6000여명이 찾는 아순시온의 최대 야의 휴식처다. 또 산림청에는 육각 정자를, 대통령 관저에는 정원을 각각 만들었다. '한국정'으로 명명된 두 곳의 전통정자는 현판을 한글로 새겼다.

파라과이는 한반도 면적의 1.8배로 조림지로서의 기후조건이 뛰어난 해외조림 투자 유망국이다. 녹색사업단은 지난 8월 파라과이 산림청과 산림투자약정서를 체결한 데 이어 2만ha에서 600만㎡의 목재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시범적으로 500ha의 조림을 추진 중이다.

이규태 산림청 해외산림협력추진단장은 "파라과이 진출을 계기로 칠레 브라질 등 다른 남미 국가에도 국내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해외 산림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날에 UNCCD 청소년 녹색홍보대사 발대식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O) 제10차 총회를 홍보할 청소년 녹색홍보대사 발대식이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관철동 (주)교원 대학의장에서 열린다. 서류심사 및 눈술·토론대회를 거쳐 선발된 홍보대사 100명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청소년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해외 나무심기 이벤트 등에 참여해 UNCCD 총회 개최 사실을 홍보하는 한편, 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사막화 방지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날 홍보대사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와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UNCCD총회 홍보 영상과 사막화 관련 동영상 시청한다. 또 사막화를 주제로 한 조별토론도 벌인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6월 몽골 나무심기에 참가할 홍보대사 10명도 발표된다. 나무심기에 참여할 홍보대사는 최종선발 눈술·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상적으로 뽑힌 청소년들이다.

발대식에서 임명장을 주고 축사를 할 박중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녹색홍보대사 발대식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번 어린이날은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며 "녹색홍보대사 활동이 사막화 및 UNCCD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UNCCD 총회는 한국 그린리더십 세계에 알릴 기회

10월 10일부터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VCCD)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UNCCD 산하에 토지황폐화 문제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지원 기관 설립을 제안하는 등 UNCCD 위상 제고 및 한국의 그린리더십을 상승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3일 오전 이돈구 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 구상은 사막화 피해지역에 기술이전·교육·사업지원 등의 형태로 우리 녹색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 과정에서 사막화 저감, 해당지역 발전,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적응 등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사막화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산림청은 우선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니터링 기관 설립 제안구상은 UNCCD 총회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사막화 심각성을 알리고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막화 및 황폐지' 정보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종합적 조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UN 3대 협약 중 하나인 UNCCD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이유도 사막화 문제의 복합성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국이 제안하는 모니터링 연구 지원 기관이 설립된다면 피해국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고 UNCCD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설립 제안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태국 방콕에 있는 UNCCD 아시아 지역 사무소(ARCU, Asia Regional Coordination Unit)를 국내에 유치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지역사무소가 오면 동북아 지역 사막화 연구와 지원을 활성화하고 중국 몽골 사막화로 황사피해를 입는 한국 등 아시아의 사막화 영향국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산림청의 기대다.

이 청장은 "UNCCD 총회는 동북아 사막화 확대방지에 기여하고 한국의 그린리더십을 알릴 좋은 기회"라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산림 환경 관련 이슈에서 국제적 흐름을 리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2011 봄철 산불, 건수·피해면적 예년 절반 수준

- 15일 봄철산불조심기간 끝나...250건 발생 454ha태워, 영남에 피해많아 -

올 2월 1일부터 시작돼 5월 15일로 끝난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25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454ha가 피해를 입어 예년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에 비해 산불 건수는 66%, 피해면적은 41% 수준이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다른 해보다 건조한 날이 많았고 구제역 방제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여건이 어려웠지만 산불담당 공무원들의 노력과 유관기관의 적극 협조로 산불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산불발생 상황에서 두드러진 점은 산불원인 중 입산자실화(99건)와 논밭두렁·쓰레기 소각(98건)이 8할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소각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국에 걸친 동시다발 산불로 헬기 투입이 여의치 않아 야간산불로 이어져 피해가 늘어난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38건의 산불이 발생해 280ha의 산림피해를 냈다. 이는 전체 피해면적의 62%를 차지하는 수치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절반 가량이 영남 지방에서 발생했고 피해면적도 75%가 영남지역에 편중된 것도 올 산불의 특징 중 하나다. 전국 피해면적 중 영남 지역 피해는 경북 60%, 경남 8%, 부산 5%, 울산 2%로 각각 나타났다.

산불가해자 검거율이 대폭 높아진 것은 올해의 중요한 성과다. 그동안 산불을 낸 사람은 처벌보다는 관용을 베풀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원인을 규명하고 증거 수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그동안 35%에 머물던 가해자 검거율을 49%까지 높였다.

류광수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산불피해를 예년의 절반으로 줄였지만 막바지에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 대응력을 더 강화하고 헬기 안전대책도 재정비해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초등학교 5학년용 산림교과서 개발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초등학교 5학년용 산림교육 전문교과서 '만남의 숲'을 개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산림의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다.

이 교과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 교과서에 과목별로 산발적으로 나오던 산림에 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등의 문제를 산림의 관점에서 교육·체험할 수 있게 재구성했다. 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먹거리, 연필, 집, 새 등을 소재로 썼다. 직접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흥미로운 읽을거리 등을 넣어 일상에서부터 숲과의 연결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각 1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적용 중인 이 교과서는 시범적용이 끝나는 대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시·도 교육청에 인정을 받음에 예정이다. 인정교과서로 발행한 후에는 청소년 산림단체인 푸른숲선도원 활동 때 활용하거나 학교숲 시범학교에 홍보용으로 제작·배포한다.

2012년부터는 학교숲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이 교과서를 구입해 활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전문출판사와 협력해 일반 서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5학년용 교과서에 이어 학년별로 산림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 인정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기연 산림휴양문화과장은 "산림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은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숲을 바라보는 안목과 마음의 여유를 주고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